

러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루블화 환율 동향 보고

'14. 12. 12(금)
모스크바사무소

□ 러 중앙은행, 기준금리를 10.5%로 전격 인상 (12. 11)

-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및 루블화 가치 절하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1% 인상 ('14년 중 총 5회 인상)
 - * '14년 기준금리 추이 : 5.5(2.17.) → 7.0(3.3.) → 7.5(4.28.) → 8.0(7.28.) → 9.5(10.31.)
- 중앙은행은 2014년 중 루블화 환율 방어를 위해 750억 달러 가량 투입(11.10일 변동환율제 도입 후에도 50억 달러 투입)하였으나, 루블화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달러화 대비 루블화 가치가 연초대비 40% 가량 하락하고, 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이 9.1%에 달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
- 또한, 중앙은행은 향후 3년간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언급하며,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힘
- Elvira Nabiullina 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공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천명함
 - 2015년 자본 유출액 전망을 기존 990억 달러에서 1,200억 달러로 상향하며,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700억 달러까지 투입할 수 있음을 언급
 - 경제성장률 둔화, 서방의 대러 제재, 국제유가 하락, 루블화 가치 절하 등의 요인으로 자본유출이 급증하여 2014년 자본유출액은 1,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
 - 한편, Nabiullina 중앙은행 총재는 루블화 가치가 현 국제유가 수준을 고려해도 10%~20% 가량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

□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, 루블화 하락세 지속

- 12.11일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전일대비 2.8% 상승한 56.43 루블을 기록하여 최근 상승 추세 지속
-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최근 2주 동안 루블화 환율은 15% 이상 급락

< 최근 미달러화 대비 루블화 시장환율 동향 >

| 날 짜 | 종 가 | 시 가 | 장중 최고 | 장중 최저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4. 12. 11 | 56.4310 | 54.9045 | 57.0835 | 54.0995 |
| 14. 12. 10 | 54,9160 | 54,0640 | 54,9500 | 53,8895 |
| 14. 12. 09 | 54,1415 | 53,7280 | 54,6080 | 53,6110 |
| 14. 12. 08 | 53,7265 | 52,6845 | 53,9260 | 52,5760 |
| 14. 12. 05 | 52,6775 | 54,3080 | 54,4055 | 52,4995 |
| 14. 12. 04 | 54,3340 | 53,6100 | 54,6340 | 52,0720 |
| 14. 12. 03 | 52,9995 | 53,9500 | 54,8915 | 52,5620 |
| 14. 12. 02 | 53,9180 | 51,1225 | 54,3705 | 50,4445 |
| 14. 12. 01 | 51,0990 | 49,3470 | 53,9285 | 49,347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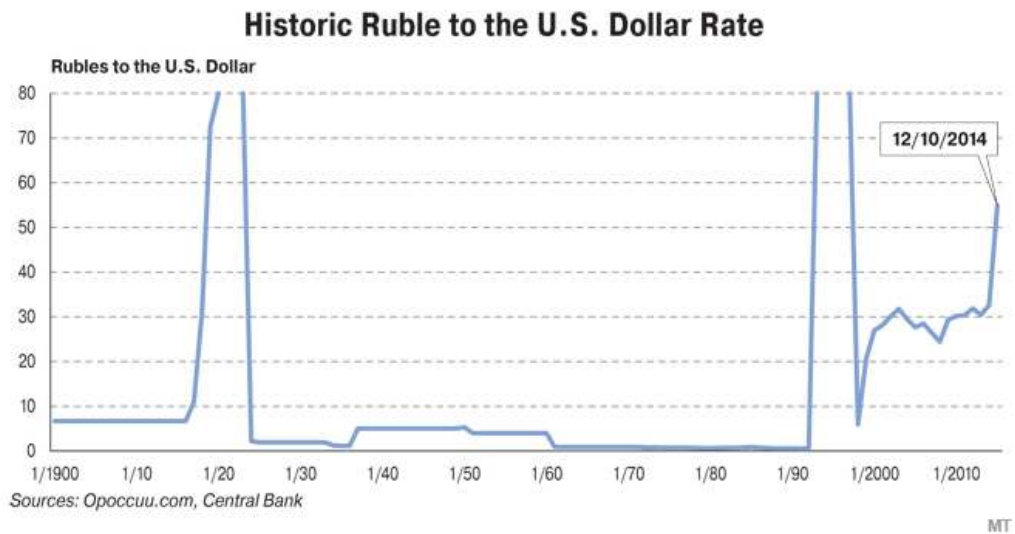


<최근 1년 루블화 동향 >

<최근 16년 루블화 동향 >

- (시장반응) 다수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루블화 환율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, 연말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모스크바 MDM Bank 환전문가인 Aram Kazayan은 “1%의 금리인상은 전체 자산의 환리스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”고 평가
- 모스크바 Credit Suisse 이코노미스트인 Alexei Pogorelov는 “시장이 중앙은행과 러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, 상황이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” 언급

- 현재 루블화가 처한 상황은 1991년 구소련 및 1913년 재정 러시아 상황과 유사한 역사적 위기라는 의견도 대두 (루블화 역사학자 Sorokoumov)
 - 루블화는 가장 오래된 유럽 화폐 중 하나로 13세기부터 800여 년간 사용되고 있으며, 러시아어와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평가되어 왔음
 -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러시아가 혁명, 내전 등을 겪었던 1923년 역사상 최고치인 1달러 당 2,352,941루블을 기록하였고, 구소련 체제 붕괴 후 1992~1997년간 급격하게 상승하여 1997년 최고 5,562루블까지 기록한 바 있음
 - Sorokoumov는 역사적으로 시장의 신뢰가 사라질 경우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음을 경고



/끝/

자료원: 현지언론(Moscowtimes) 기사 및 러 중앙은행 자료 등